

# 11번홀 통한의 더블 보기... 우승 놓쳤다

## 위성미 SBS 오픈 7언더 209타 2위 그쳐 최나연 공동 3위... 한국 남자군 7명 '톱10'

'슈퍼 루키' 위성미(20·나이카골프·미국 이름 미셸 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위성미는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후쿠의 터틀베이리조트골프장 파머코스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SBS오픈 3라운드에서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줬다. 공동 선두로 출발한 위성미는 마지막 라운드에서 한 때 3타차 선두로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1타를 잃어 함께 7언더파 209타로 2위에 그쳤다. 뒷심을 발휘한 스탠퍼드는 10언더파 206타로 개막전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3라운드를 공동 선두로 맞아 고향 땅 하와이에서 우승컵을 안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위성미는 비록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길었던 부진의 터널을 벗어나 올 시즌 LPGA 투어의 흥행카드임을 확실히 알렸다. 위성미는 10번홀(파4)까지 버디 2개를 잡아 버디 1개, 보기 2개에 그친 동반플레이어 스탠퍼드에 3타차까지 앞서 갔다.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지만 위성미는 11번홀(파4)에서 티샷이 해저드에 빠져 1벌타를 받고 세번째 샷을 해야 했고 이마저도 그린을 지나치면서 이 홀에서 한꺼번에 2타를 잃고 말았다. 주춤하던 스탠퍼드는 힘을 얻은 듯 13번

홀(파3)부터 3개를 연속 버디를 잡아 순식간에 위성미를 2타차로 따돌리고 선두를 탈환했다. 힘을 잃은 위성미는 17번홀(파4)에서 1타를 잃어 결국 3타차로 스탠퍼드에 우승컵을 넘겨 줬다. 최나연(22·SK텔레콤)은 강동 속에서도 3언더파 69타를 쳐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1·LG전자)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이정연(30)이 공동 7위(2언더파 214타), 재미교포 제인 박(22), 지은희(23·힐라코리아), 이지영(24)이 공동 10위(1언더파 215타)를 차지하는 등 한국 및 한국계 선수 7명이 톱1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1	안젤라 스탠퍼드	-10 (65 71 70)
2	위성미	-7 (66 70 73)
3	최나연	-4 (71 72 69)
3	안젤라 박	(69 68 75)
5	청아니	-3 (66 75 72)
5	미야자토 아이	(72 70 71)
7	크리스티 커	-2 (70 75 69)
7	이정연	(73 72 69)
7	브리타니 령	(71 70 73)
10	제인 박	-1 (72 73 70)
10	니탈리 걸버스	(74 71 70)
10	지은희	(73 71 71)
10	테일러 리운	(69 74 72)
10	이지영	(71 72 72)



'슈퍼 루키' 위성미(미국 이름 미셸 위)가 15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카후쿠의 터틀베이리조트골프장 파머코스(파72·6천560야드)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SBS오픈 3라운드에서 4번홀 버디를 성공시킨 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실망스럽지만 후회는 없다”

### ■ 위성미 일문일답

미국 하와이주 카후쿠의 터틀베이리조트골프장 파머코스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 SBS 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위성미는 예상보다 표정이 밝았다. 역전패를 당해 우승을 놓쳤다는 아쉬움보다 긴 슬럼프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앞선 듯 했다. 심지어는 “힘든 것 느껴보고 나니까 인생이 뭔지 알 것 같다”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은 신경쓰지 않는다”고 어른스럽게 말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에 3타차로 앞서다 3타차 우승을 내준 데 대해서는 “후반에 퍼터가 좀 안됐고 안젤라가 워낙 잘 쳤다”고 답답하게 평가했다. 다만 “꼭 우승하고 싶었는데 안되서 실망스럽다”고 아쉬움도 내비친 위성미는 “최선

을 다해 후회는 없다. 더 잘해야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위성미와 일문일답. -경기를 마친 소감은. ▲실망스럽다. 우승하고 싶었는데 못했으니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후회는 없다. 2등도 잘한 것 아니다. 플레이도 좋았다. 그래도 우승 못했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우승하지 못했다고 보나. ▲경기가 안풀렸다. 후반에는 퍼트가 안 들어갔다. 그리고 안젤라가 너무 잘 쳤다. -역전패의 빌미가 된 11번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3번 우드로 티샷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밀렸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온 것 같다. 다음 샷을 5번 우드로 잘 쳤는데 길었고 러프에서 풀이 질겨 ‘털썩’하는 실수를 했다. 한번도 오른쪽으로 밀리는 샷이 없었는데-

### ‘컷 오프 탈락’ 신지애 교육 받고 관광

LPGA 투어 정식 멤버 데뷔전인 SBS오픈에서 컷 탈락한 신지애(21·미래에셋·사진)는 최종 라운드인 15일(한국시간) LPGA 투어 신인 선수 교육에 참가했다. LPGA 투어는 ‘루키 어워’라는 이름으로 신인 선수들에게 연간 16시간의 자원 봉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회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역할을 맡아보면 선수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신지애는 컷오프되자 곧바로 투어 사무국

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지만 정작 맡겨진 일은 물 교육 받으러는 것이었다. 오전에 교육을 마친 신지애는 부모, 동생과 함께 와이키키 해변 등 하와이 관광에 나섰다. 이왕 떨어졌으니 몸과 마음을 추스르겠다는 뜻이다. 신지애는 17일 귀국해 곧바로 전남 영광으로 내려가 연습에 매달릴 계획이다. 서울이나 광주 등 대도시는 번잡스러워 집중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연합뉴스



## 광주 10위, 전남 8위

### 동계체전 폐막...경기 종합우승

광주·전남이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9회 동계체육대회에서 각각 종합 10위와 8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스키·빙상·컬링 등 3개 종목에 11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광주는 비록 메달 획득은 못했지만 종합득점에서 191.5점으로 지난해 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10위를 차지했다. 209명의 선수단이 스키·바이애슬론·컬링·빙상 등 4개 종목에 출전한 전남은 금 5, 은 6, 동 5개를 획득, 지난해와 같은 8위를 기

록했다. 하지만 전남은 총메달 16개, 종합득점 264.5점으로 대회 출전 사상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으로 동계 스포츠의 발전 가능성을 확실히 열었다. 특히 크로스컨트리 환송초 이윤진과 바이애슬론 장흥군청 조인희 선수는 각각 대회 2관왕의 영예를 안으면서 전남의 중위권 도약에 주역이 되었다. 또한 나주초 박소연은 빙상피겨 싱글B조에서 전부분 최고점수인 108.44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제2의 김연아 탄생’을 예고했다. 한편 경기는 금 77, 은 67, 동 71개로 종합 1,138.5점을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광주 기본점수 확보 전략 주효 두계단 상승 全南 ‘제2의 김연아’ 박소연 발굴 최대 성과

### ■ 동계체전 결산

‘동계 스포츠 불모지’ 광주·전남이 이번 동계체전을 통해 새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광주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상승한 종합 10위, 전남은 작년과 같은 8위, 경기장이 부족하고 우수 선수층이 얇은, 열악한 환경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의 선전은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 전남은 이번 대회서 대선전을 펼쳤다. 비록 지난해와 같은 순위에 머물렀지만 금 5개, 은 6개, 동 5개 등 총 16개의 메달에 종합득점 264.5점을 얻어내 대회 출전 사상 최다 메달과 최고 득점을 기록했다. 특히 박소연(나주초) 선수의 금빛 연기로 ‘제2의 김연아’ 탄생을 예고한 피겨와 스키 크로스컨트리·바이애슬론에서 16개의 메달을 모두 뽑아내는 등 이들 종목이 전남 중위권 도약의 효자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피겨 국가대표 상비군 박소연은 쇼트프로그램 39.20점, 프리 66.22점으로 종합 108.44점을 기록, 싱글 B조 전종별 최고 점수의 놀라운 기량을 발휘했다. 박소연의 ‘금빛연기’는 그간 서울·경기의 메달 텃밭이었던 피겨스케이팅이

앞으로 전남의 전략종목에 꼽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 주력 종목 크로스컨트리에선 이윤진·이원지·윤민지 선수로 구성된 화순초가 6km 계주 경연을 차지한데 이어 이윤진이 프리 4km까지 1등을 거머쥐었다. 바이애슬론에선 조인희 선수가 여자 일반 개인경기 15km와 스프린트 7.5km를 휩쓸며 2관왕에 올랐고 문지희·전남선발이 은메달 2개를 획득했다. 그러나 스키 알파인과 컬링 종목은 타 시도와의 기량차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위권을 맴돌았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세부종별 참가종목을 늘려 기본점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종합순위 2계단 상승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알파인 종목서 남대부(5.5점), 여중부(4.5점), 쇼트트랙 남고부(2점), 스피드 여초계주(3점)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여중부(5점)가 새로 출전해 종합점수에 20점을 추가시켰다. 하지만 광주·전남이 동계체전에서 꾸준한 전력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무엇보다도 우수선수 발굴·지도자 양성 및 팀 장단에 주력해 동계스포츠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16일 (월)**  
▲PGA AT&T 페블비치 내셔널 프로암  
FR(05:00·SBS골프·SBS스포츠)  
▲평창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14:10·KBS1)  
▲핸드볼 큰잔치 여자부(백산건설:삼척시청)(13:50), 남자부(경희대:인천도시개발공사)(15:30·SBS스포츠)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금호생명(18:50·SBS스포츠)

수많은 사례를 그려나간 전신보험  
**대한민국 NO.1 재혼전문회사**  
결혼 전문회사는 수없이 많지만  
재혼 전문(재혼) 전문회사가  
재혼전문, 생計적이고 신중한 회사는  
이곳입니다.  
재혼전문, 생計적이고 신중한 회사는  
이곳입니다.  
www.reby.com  
www.reby.com

남성 헤어 가능장학 **大山프리모님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원가판매  
SBS·MTV '사람세상' 촬영  
**기발**  
**조슬림!!**  
귀하의 헤어와 면모를 높여주는  
명품한 헤어스타일이 되었습니다.